THE CHOSUN ILBO. (THE KOREA DAILY NEWS.) SEOUL 昭和十二年一月三十日 (土曜日) 第三版 第五千六百四十一號 【一】
(昭和七年十一月三十日 第三種郵便物認可)

朝鮮日報

朝刊
本紙朝夕刊十二面
編輯兼發行人 方應謨
印刷人 崔益連
發行所 京城府太平通一丁目 株式會社朝鮮日報社

社說

宇垣內閣流産
超然內閣出現未免

一

지난 二十五日 午前一時 組閣大命을 拜受한 宇垣大將은 爾來 五日間 陸軍側의 全面的反對를 바드면서 執拗히 組閣에 注力하얏스나 陸軍側의 最後까지의 强硬反對로 二十九日 마츰내 組閣大命을 拜辭하얏다。組閣大命 拜受卽時 陸軍側의 絶對反對의 非公式聲明을 보고서도 敢히 組閣을 決心한것이 宇垣大將이 아니고는 할수업는 일이지만 絶對反對의 空氣를 呼吸하면서도 寺內陸相을 訪問하야 三長官에게 陸相推薦을 依賴하고、杉山敎育總監의 個人的勸告、寺內陸相의推薦正式拒否回答을 밧고서도 오히려 組閣을 斷念치 안코 今井田氏를 寺內陸相에게 보내어 三長官에게 會見을 請한것等은 宇垣大將이 아니고는 할수업는일이다。이것은 오로지 宇垣大將이 陸軍의 長老로 陸軍의 內部事情에 精通하니만큼 直接 陸軍에 當하야 말하면 協調될것을 밋기때문이 엇섯다。元老、重臣은 勿論이오 政界、財界、言論界가 全部 一致하야 滿幅의 支持를 不惜한것도 宇垣氏래야 能히 이陸軍과 政黨을 完全히 牽制하야 難局을 打開할것을 미든때문이아니라。그러나 宇垣氏의 最善의 努力도 마츰내 水泡에 歸하고 말앗다。

二

宇垣大將이 最後까지 執拗하게 協調的努力을 해온것은 누구나 認定하는바다。그리하야 一部에서는 大將을 激勵하는 나머지 非常手段을 써서라도 組閣을 完成할것을 期待하얏다。그러나 宇垣氏가 非常手段에 訴치 안코 最後까지 協調的 態度를 取하얏다는것은 時局이 非常한 때문이다。卽 宇垣氏가 非常手段으로 陸軍을 壓迫하야 設使 組閣을 完了하얏다 할지라도 그後에 發生할지도 모를 事態를 大將은 이미 熟酌한때문이다。大將을 諸不祥事件의 責任者라하며 大將首班下에서는 着着 進行途上의 肅軍이 水泡에 歸한다는 陸軍中央首腦部의 意思를 壓迫하고 어찌 軍全體의 統制의 完全을 期할수잇스랴。이리하야 大將은 마츰내 宰相의 印綬를 拜受하기에 及及지안코 大命을 拜辭하고 陸軍大將의 職까지 辭한것이다。

三

元老、重臣은 勿論이어니와 政界、財界、言論界等에서까지 絶對支持를 함에 不拘하고 陸軍이 絶對反對를 表明하야 쯧까지 讓步치 안는것은 무슨理由일가。그것은 陸軍首腦部가 宇垣大將 가튼이는 旣成政黨에 屬할 人物로서 國防充實、國民生活安定가튼 庶政一新의 項目을 實行할만한 氣魄이 업슬뿐더러 二·二六事件以後 左右兩派를 各各 默過하며 中正的 길을 밟아가는 肅軍途中에 過去 陸相時代에 自派로 集結햇든 勢力派를 다시 復活시켜 急進派의 反感을 刺戟시킬가를 憂慮한때문이다。元老、重臣、政界、財界、言論界는 陸軍의 政治干涉을 排擊하고 二·二六事件가튼것을 機會로 斷軍을 徹底히할것을 軍部에 要求하야 이미 肅軍이 完了된것으로 보기때문에 宇垣大將가튼 이를出馬케해도 時機가 일르지 안다 보지만 陸軍은 아즉 그 時期가 아니라하야 마츰내 正面衝突을 본것이다。

四

宇垣大將이 大命을 拜辭하얏스매 議會政治의 機運은 매우 稀薄하다。宇垣氏에게 大命再降下를 期待하는 이가 업는바 아니나 設使 宇垣氏에게 再降下가 된다할지라도 組閣이 完成되것갓지 안흐며 되어도 陸軍과 正面衝突은 未免할것이다。그러므로 今後는 陸軍에서 容認하는 人物이래야 後繼內閣의 首班이 될지니 平沼、近衛、林、大角、南等의 諸氏가 그後任에 擬하지 안홀가。이리되면 超然內閣의 出現은 未免할지며、統制政治는 一層 顯著해질것이다。

退官을出願하면 陸省、適當히處理

【東京電話同盟】宇垣大將은 二十九日大命을 拜辭하는同時에 今回組閣을 契機로表現된 陸軍部內情勢에 鑑하야 陸軍大將의 地位에 잇슬수업다 하고 大將의 官을 拜辭하기로 表明하엿스나 二十九日에는 陸軍省에 아무手續을 取하지안햇다 大將의 退官에는 陸軍將校分限令第三條一項에 依하야 退官願이 提出된다면 陸軍大臣은 部內統率의 責任上 二任上 그同意를 要할것이므로 陸軍省으로서는 出願을 기달리여 適法으로 處理할方針이다

宇垣大將 四谷自邸에歸還

【東京電話同盟】宇垣大將은 二十九日午後一時二十五分 麻布廣尾의 組閣本部를 撤去하야 四谷의 自邸에 돌어갓다

林銑十郎大將에게 後繼組閣大命降下!
二十九日午後十一時廿七分
同大將卽時參內拜受

【東京電話同盟】後繼組閣의 大命은 廿九日夜 元陸軍大臣林銑十郎大將에게 降下하엿다 (京城着電廿九日午後十一時十五分) (寫眞은 林銑十郎大將)

【東京電話同盟】平沼男과의 會見을마친 湯淺內府는 二十九日午後十時四十四分 宮中에參內 天皇陛下에 拜謁의 御吩咐를밧고 平沼男과의 會見內容을 詳細히 奏上하엿다

【東京廿九日至急電同盟】林銑十郎大將은 廿九日午後十一時廿七分 惶恐하압게도 天皇陛下의御召命을밧고 宮中에參內하야 後繼內閣組織을拜受하엿다 (以上號外再錄)

【東京電話同盟】二十九日午後九時 東京驛着特急『燕』號로 歸京한 湯淺內府는 同九時五分宮中에參內 卽時 天皇陛下에拜謁의 御吩咐를밧고 西園寺公의 奉答內容을 伏奏하엿다

【東京電話同盟】湯淺內府는 二十九日午後九時四十二分 宮中을退出하엿다

【東京電話同盟】湯淺內府는 大命降下에 압서 二十九日午後九時五十三分 西大久保私邸에 樞密院議長 平沼騏一郎男을 訪問하고 同男의 內意를 確質하엿다

後任陸相에는 杉山大將推薦?
三長官會意見一致

【東京電話同盟】後繼內閣의 陸相候補에 對하야는 以前부터 三長官이 協議한結果 敎育總監杉山元大將을 推擧하기로 意見이 一致되여 아마 三十日午前中에 軍事參議官會議를 開催하고 그 諒解를 어들터이다 그리고 杉山大將이 後任陸相으로 實現되는境遇 後任敎育總監에는 三長官이 協議한後 銓衡하게될터인데 아마 來三月까지는 敎育總監을 두지안코 敎育總監部本部長 中村孝太郎中將을 敎育總監代理로 推擧하야 三月의 定期異動時에 中村中將의 昇格 又는他方法으로 敎育總監을 補하는 手續을 取할것이아닌가觀測된다

林中將의爲人
宇垣氏와協力한

【東京電話同盟】組閣五日 陣痛을 거듭하던『希望宇垣』의 報道가 全國民으로하야금 침울생키며 注視하고잇든 二十九日朝 昨夜來의 冷雨를마지며 敢然히 이러난 一將軍 林彌三吉中將은 如何한 人物인가 宇垣大將에大命이 降下하매 卽時 組閣本部에 달려가서 寢食을잇고 今井田氏와함께 將軍宇垣의 手足이 되고 耳目이되여 强硬一點으로 三宅坂을 無視하고 情熱을짜며 縱橫으로驅馳하는中將 그는宇垣將軍과함께 數十年軍에서寢食을 가티하고 忠良한皇軍의 一人으로서 一生을 바쳐온軍人이다 明治九年石川縣出生으로 今年六十二歲 宇垣陸相時代 第四師團長에補하엿고 上海事變當時에 東京警備司令官이되며 그後軍事參議官、大將으로 진급되여이섯는데 荒木陸相時代에는 陸軍敎育總監으로 옮기게되고말엇다 現役時代陸軍有數의 戰術家로서 大楠公硏究家로서 世上에 알린 嚴肅한性格을 가지고 部內를 울리어던사람이다 宇垣大將에 對하야는 尊敬하고잇든데 直接關係가 업스므로 今番 政變에中將이 보이엿슬때 奇異한눈으로보앗다 그는湊川附陣時代楠公의 大精神 勝敗가 업드래도 大義를 爲하야 生死를 두물바아니다 하는 鐵과가튼 信念으로 三宅坂의 反目에 抗하야 敢然히 뛰여간것이다 風雲雨를무릅쓰고 이五日間 中將은 불덩이와가튼 信念을갓고 어느때는 官邸에 寺內陸相을 어느때는 軍의大先輩 河合操大將을 私邸에 訪問하엿스며 兩將軍은國家의 前途를憂慮하며 血淚를짜어내며 울엇다는일도잇섯다 二十九日早朝組閣本部에서 宇垣大將이 最後의 決意를 披瀝하야 河合大將에 문하는人事狀을 發表할때에는 林中將은 悲痛으로全身을떨며 宇垣大將의 苦衷을 說明할때 中將의 雙頰에는 紅潮가 치밀리어 熱淚까지 보이엿다 數萬의 敵을아페두고 微動치도 안튼將軍 林이 今朝이 易然感激한것은 무엇을意味한것일가 그러나드디여……

流言蜚語嚴重取締
各地方長官에通牒

【東京電話同盟】全國治安維持의

軍部全的支持
條件提示도不必要

【東京電話同盟】宇垣大將의 組閣을 流産시킨 陸軍의 後繼內閣에對한態度는 注目되고잇는데 林銑十郎大將의 組閣에 對하야는 全面的支持를하고 陸軍의主張하는 庶政一新과 肅軍達成을 期하고저 하고잇서 從來의 內閣에 對한것과가티 陸軍大臣의入閣에 對하야 政策其他에 關하야 條件을 提出할必要를 感하지안는다 그것은 林大將이 陸軍이 무엇을생각하고 무엇을希望하고잇는가를 가장잘알고잇는 一人이기때문으로 條件을提出치안터라도 陸軍大臣이 閣內에잇서 閣議其他를通하야 軍의行하고자하는 政策을遂行하여갈 方針일것이다 特히林內閣은
一、國防의充實
一、議會解散斷行
一、肅軍을爲함에는 萬難을 排除하고 邁進할것
이라고 잇는다

宇垣氏行動은遺憾
小泉鄕軍副會長談

重責에잇는 內務省警保局에서는 國家의非常時局에 直面하야 全國的으로 流言蜚語가 盛히行하고 잇슴에 鑑하야 徹底的取締를期하기로되어 二十九日午前十時半 警保局長、宮後에 首하야 警保課長以下關係官이 協議한結果 社會不安을 惹起할要因이되는 者 文書、人心을 刺戟하는 言動 新聞等에 對한 深刻한 批判等의 不穩言動에 對하야는 斷乎取締를 勵行하는 同時에 左翼、右翼方面의 策動을 嚴重히 監視하기로 方針을 決하고 各府縣長官에게 各各依命通牒을 發하기로되엿다

【東京電話同盟】林中將과 河合大將과의 會見談發表에 對하야 在鄕軍人會에서는 會長鈴木莊六大將이 去二十七日 時節이 時節인만치 귀찬타는 理由로 千葉縣帖橋의 大將夫人令弟森岡氏邸에 赴하야 不在中임으로 同會副會長 小泉六一中將은 代身하야 말한다 會見談이란것을 보지못하엿슴으로 內容에 對하야는 무엇이라고 말할수 업스나 以下諸點에對하야는 明白히 하여두지안흐면 아니된다고 생각한다 卽
一、三長官會議의 決定及軍의意向이란것이 誤解되여잇지나안혼가? 卽 宇垣大將絶對反對라함은 宇垣大將個人에 對하여서가아니오 肅軍達成上 同氏가나오는것은 困難한點이잇스므로 只今當時出馬를 中止하여주기 바란다는데 不外하다 巷間에서는 政黨을 무엇이라 고말하지안코 反對한다는것은 理論이서지안는다 는 者도잇스나 여기에 외히려 軍이말할수업는 苦痛이잇는것이다 이點은 宇垣大將도 充分히알터인데 如斯한態度를 取한것은 더욱遺憾이다
一、陸軍에서는 이問題가 發生하는 同時에 在鄕軍人會各分會支部에 對하야 挾捷的으로 움지기는것을 嚴히警戒하엿다 各分會支部는 本方針에따러 다만 軍中央部의決定을 기달리여 行動하는 態度를 取하엿다 個人의動向은어찌할수업스나 各分會支部의 動向에對하야는 嚴히警戒하고잇다

非常時總理大臣
林銑十郎大將의爲人

【東京電話同盟】組閣의 大命은 드듸여 林銑十郎大將에 降下하엿다 昨年三月七日 二·二六事件에서 陸軍長老로서의 責을지고 스스로 豫備役編入을 申請한以後 滿一年 世上과沒交涉의날을보내엿다 沈痛한大宇垣의 얼굴을 내엿다 이제야 非常時內閣總理大臣으로서 크로-즈엎되여 힘잇게國民의압페나서게되엿다 陸軍大將林銑十郎의名은 너무도 世上에서 잘알리어잇다 林大將은明治九年二月二十三日 石川縣金澤市 士族林孜孜郎의 長男으로 出生하야 六十二歲 同鄕의 阿部信行大將과가치 金澤四高로부터 士官學校에 轉하엿다 第八期의 步兵科 明治三十年六月步兵少尉에 任官 昨年三月까지 滿四十年間軍人生活에 終始한純粹한武人으로서 彫刻의武人像에서 볼수잇는 嚴肅한얼굴이 表現하는 가티 그는決코 輕率히 進退하지안는이로서 自己의 自信이업는 位地에안는 者는아니다 滿洲事變의初期 林大將은 朝鮮軍司令官으로서 陛下의 嘉村旅團을 新義州에 待期시키고잇섯는데 關東軍이 急을告하매 廟議는勿論 陸軍中央部의 意向까지 判然치안흔 가운대에 獨斷으로 鴨綠江을넘어 猛烈히進擊시켯다 그리고 自己는 軍司令官舍안에 白裝束으로 軍刀를아페 노코 割腹하고저 一夜를 새웟다 한다 이는大將의 性格을 말하는 代表的話頭이다 明治三十七年八月二十八日 滿洲에서는 돌이라도녹일만한 炎熱로 龍山의 戰場에 死屍에모여드는 蒼蠅이싸코 물고잇섯다 한다 攻擊은 進捗치안는다 步兵第六旅團長一戶少將은 第一砲台下斜面에서 副官林大尉와 二人으로잇섯는데 『이리되면 突擊이다』라고 林大尉는 突擊態勢를 取하야 握飯을 내면서 배가 고퍼서는 戰爭할수 업다고 突擊準備로 배를 만드럿다 한다 이戰爭에서 林大尉는 殊勳甲 大尉로서는 破格의 功四級金鵄勳章을 拜受하야 乃木第三軍司令官으로부터 名譽잇는 感狀을 주어다 林大將은 世上을 뛰여낫秀才는아니다 明治三十三年陸大를나올때 軍刀組로부터는 除外됏當하엿다 朝鮮軍參謀의 少佐時代에 零下三十七度의 嚴寒을 무릅쓰며 新義州로부터 豆滿江에 國境을 文字 그대로 踏破하고 朝鮮의 國境守備方策을 樹立하엿다 朝鮮軍에는 緣故가기퍼 軍司令官時代及陸相時代에 半島靑年에 學費를 주어섯다고하는 일도잇다 또 孝行의點도 相當히 有名하야 母堂澤子(七○)氏가 外出하엿다가도라오면 嚴肅히 무릅을꿀코『先十郎은 只今돌아왓습니다』고 人事한다 四男四女의 子福者로 家庭에돌아와서는 林先十郎은 普通人間이다 그가 陸相時代 最初의 第六十 議會에서 八田宗吉氏의 質問에答한말에『今後는 軍의統制에 努力한다 同時에 諸氏도 (政黨을指目한)政治를하는 立場에서 充分히配慮를 바라다』고하엿다 이제大命을 拜受하엿는데 大將의 決意는 一層더 牢固한것이 잇슬것이다 今後果然 非常時日本政局에 如何한 手腕을示할지 이야말로 九千萬國民의 一齊히 刮目하고 바라는바다

林中將陸軍誹謗說
軍首腦重要措置講究
國軍統制를故意로紊亂케하고
軍民離間企圖하엿다고

寺內陸相

【東京電話同盟】陸軍에서는 二十九日 林彌三吉中將이 發表한 陸軍誹謗의 言說을 重大視하고 同日 梅津次官、磯谷軍務局長、石本○務課長、田中兵務課長等 關係官參集 愼重協議를 行한結果 그內容을 充分히 調査한後 所要의 措置를 講究하기로 되엿는대 組閣本部發表의 言說中에는
一、陸軍三長官의 決意에 對한 惡意잇는 誹謗、皇軍統制를 故意로 紊亂하려는 言說
一、陸軍을 誹謗하고 軍民離間을 부치려는 魂膽이 明瞭히 看取될 不啻라 陸軍이 不退轉의 決心으로써 進行하고잇는 肅軍達成을 妨害하고 皇軍을 混亂에 陷入케하야 往年의 派閥抗爭을 再現하려는 重大한 企圖가 伏在한것이 看取되므로 陸軍當局에서는 特히愼重을 期하야 調査의 完了를 기다려 무슨 措置를 講究하려하는 模樣이다

夕刊後市況 (廿九日)

大新	八九八○	(一○低)
鐘新	二三五○○	(不變)
日產	八二八○○	(一○低)
東新	一五一七○	(一○低)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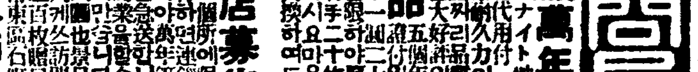
◆大阪短期 無配◆
◆橫濱生絲 後引◆ 當限 一一 先限八八○○○
◆福井人絹 後引◆ 當限 一一 先限 八四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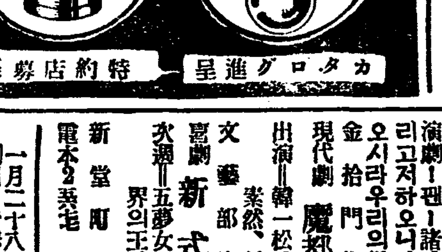
所見披瀝不能!
小磯軍司令官談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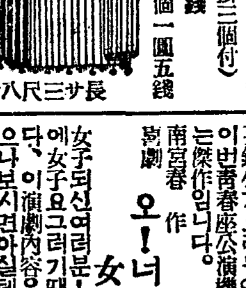
宇垣大將組閣拜辭의 報導를가지고 朝鮮軍司令部에 小磯軍司令官을 訪問하매 軍參謀長을 通하야左와如한 意見을 述하엿다 今次組閣問題에 關하야는 事前新聞紙를通하야 承知하고잇슬뿐이므로 至當한 結論的 所見에는 到達치못하엿다 또 今後假令結論的所見을 엇는다 하더라도 純武的職務關係上 率職하는自己로서는 新聞記者諸君에 이를發表할것이 아니라고 밋고잇스므로 아무것도말할것이 업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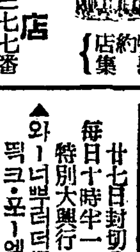
人事·集會

◆川岸第二十師團長 新義州及昌城守備隊巡視次로 三十一日午後十一時 京城驛發 二月四日歸任豫定
◆深堀游龜氏(朝鮮軍參謀) 參謀會議出席次로 三十日午後二時四十分 京城驛發東上 二月十日歸任豫定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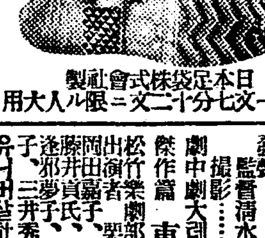
名古屋 著名問屋
高級萬年筆

高級エボナイト軸 十四金ペン 三四年間 喜ばれ 比ぶる物なし 萬年筆 …
新製品 …
連鎖店募集
名古屋市東區 三京商會 振替名古屋二一三三二番

特許石油下向ランプ / 特許ガソリンランプ

新發賣 十六燭光
カタログ進呈 特約店募集
名古屋市中區古渡町四 合名會社 柴田商店 振替名古屋二一三一番

ダンボール入折疊式 衣服吊 經濟洋服收納器 (服掛三個付)

長サ三尺八寸
一個代金 二圓九十錢 送料一個九十錢 二個一圓五錢

經濟洋服收納器 (服掛一個付)

一個代金 一圓八十錢 送料一個六十七錢 二個迄九十九錢
(規則書呈) 名古屋市中區老松町 伊藤利商店 振替名古屋一○三七番 特約店募集

商報進呈
ハクト印 スヤリメ
名古屋南大津町 田組與商店 電話中二七○一二番 振替名古屋七十七番

太陸牌ヒサ地下先丸足袋

◇本品ハ陸軍省ノ制定セル品ナレバ特ニ丈夫向優良品デアリマス
一足 一金一圓○五錢 五足 一金四圓七拾五錢 五足 一金參拾七圓五十錢
但シ前金御注文ノ方ニ限リ送料弊店負擔致シマス
日本足袋株式會社製 (一文七分ヨリ十二文ニ限ル大人用)
名古屋市西區堀詰町二○ 三洋商會 振替名古屋二六三番 電話西四六六八番

第一劇場 電話光化門一七五五番
名篇 倫敎의人猿 主演 원니오-란드氏 노만 헨리-하루氏

一月二十八日부터三日間 超特別興行週間 滿都待望期待篇當히 封切 每日晝夜三回公演 一回十二時부터 二回七時始映 三回七時
大衆料金 階上十五錢 均 階下十錢 一
松竹蒲田下加茂樂劇部合同出演全發聲 監督 清水宏氏 傑作篇 東洋의母 劇中劇 大레뷰-단고-로사篇 撮影 佐佐木太郎氏
出演 松竹樂劇部男女生徒總出演 藤田嘉子、栗島すみ子、岡讓二氏、逢初夢子、三井秀男氏 阿部正三郎氏 坪內美子 …
原作…로바-드하리스氏 脚色…존-골톤-氏 監督…알바-드에스다고스대

團成社
世界蠻敵으로삼고、運轉手武勇傳 아로삭인感激篇 (次週封切)
母の花園 聖스런어머니의사랑、눈물에
高津慶子 主演 新興키네마超特作映畫
巨星지그펠드(後篇) 뮤-지그펠드의最期! 一場傀千金、豪華譜의代表作레
M·G·M·超豪華版 월리암·포엘·마나로이 루이스레이너 主演
鐵血가트는武人精神과아름다운友情과感激
바다로가면 포랭크부샤지 監督 띡크·포-엘、루베키라 主演
와-너뿌러더超大作品 特別大興行 每日十時半一時半六時廿分 廿七日封切(五日間)

東洋劇場
…女子되신여러분! 女子란女子때문에女子요그러기때문에女子라합니다、이演劇內容은미리말슴하지안으나보시면아실터이니、女子가왼女子인지오직만말고보십시요! 次週特別豫告○李雲芳作『漢江울은푸르건만』林仙主作『잊지못할사람들』
喜劇 南宮春 作 오! 너의일홈은 女子니라 一幕
悲劇 朴英鎬 作 『흘너간鳳女』 四幕 人生의뒤골목을거닐하던祕命의鳳女의一生記! 過渡期男女들의눈물겨운이야기는새삼스럽게도우리들을울게만들것입니다。朝鮮劇界의俊才인劇作家朴英鎬씨가오래동안沈默을직히다가 이번靑春座公演機會에特別提供하는傑作입니다。
劇團 靑春座公演第五週 一月二十八日낫부터

新富座 電本2三七七
次週=五夢女、赤陽의斷崖、世界의王子、暗街의全滅
喜劇 新式舊式 全一幕 文藝部 案
現代劇 魔都의天使 全一幕 金拾門 作 出演=韓一松、朴鵬、金英波、李素然、孫流星、黃銀順
오시라우리의新富座로? 洪吉童이라면小說에서나映畵에서나만히들보셧을터인데 … 이것을朴英鎬氏에게特別히 … 리고저하오니보시라洪吉童傳을?
時代劇 洪吉童 全一幕 朴英鎬 脚色 一月二十四日부터二日間 晝夜二回

中央館 本二○一四 永樂町
每日晝夜三回興行 第一回 一·二○ 第二回 六·三○ 第三回 五·○○
佐賀の夜櫻 阿部九州男 水下双葉主演
百獸の王者 コロムビア超特作大猛獸映畫
拳鬪家と坊や 水道橋太郎 大岡怪童主演
一月二十八日より三十一日まで四日間公開 階下普十錢均一

鍾路四丁目金銀商의 陳列窓을바수고 "갱"侵入 貴金屬多數를拉去

舊年末의特別警戒網을뚤코 犯人의行方은杳然!

구년말을압두고 부내각경찰서가 경찰부의 지휘미테 전서원을총동원하야 매일밤가티 떠고잇는 철통가튼경계진을뚤코 아주밤이 늦지도안흔 어떤시가에 경찰서근처에서 대담하게도 전방안에사람이 직히고잇는 금은방의진렬장을 깨트리고 귀금속을훔쳐간 "갱"비슷한 사건이발생하야 경찰당국을 놀래게하고잇다

이십구일오후여덟시삼십분쯤부내종로(鍾路)사정목일백십이번지 금은세공상점 김성근(金聖根)의집에 그의아들 의선(金義善)외 애를두명이 전방을 직히고 잇슬때에 나희약 이십오륙세가량된 직공복을입은 청년두명이 별안간 진렬장압헤나타나서 물건이가튼것으로 진렬장유리를 깨트리고 그곳에 진렬해둔 순금비녀세개와 귀개세개, 단추열한개 뒤ㅅ고지세개모다약 오륙백원어치물품을 움켜가지고 비호가티 어데로 자최를 감추엇다 급보를바든 소관 동대문 경찰서에서는 게원이곳 현장을 림검하는 한편부내각경찰서에 수배하야 물샐틈업는수사진을펴고 범인을엄탐중이다

失職、喪配、生活難에 自暴自棄로犯行

冷泉町傷人强盜눈물의半生

석간기보—이십구일오후한시 사십분경에 랭천정(冷泉町)칠십이번지 영야현도(永野顯道)씨집에드러가서 그의처리츠(りつ)를 때려서 주상을입힌후 현금오백원을강탈하여가지고 도망하려다가 서대문서에 체포된 공덕정(孔德町)이백십이번지 박경서(朴庚緖)(三一)는 그후취조에따라 그가칸회로 얽거놋는 눈물겨운반생이 취조하는 경관으로하여금 동정의눈물을 금치못하게하엿다한다

그는 전기 주소에서 출생하야 의주 모 보통학교를 졸업한후 봉래정(蓬萊町)에잇는 조선인쇄주식회사(朝鮮印刷株式會社)에 직공으로 취직하여잇섯다 구차한살림에 가족은 열명이나 되여 보수가족나믐을 차저각인쇄소를 전전하다가 작년오월경에 부내림정(林町) 장곡인쇄소(長谷印刷所)를나온후 이어서 상처를 하엿다 열사람가족의생활는그의 혀이벌어오는 매월사십원가량의 근소한 수입으로유지하여가게되여 실직상배생활난은 그로하여금 점점자포자기의길로것게하엿다한다

구녀말을 닥처하고 생활은 점점궁핍하여지자 재작일 이십칠일부터 범의(犯意)가생겨 서대문우편국(西大門郵便局)에 그날과 이튼날인 이십팔일양일에궁하야 하로에서시간식이나 잠복하여잇스면서 기회를 엿보고잇섯스나 적당한 목적물이 업섯다고한다 이십구일에도 전과마찬가지로 서대문우편국에 갓다가 목적을달치못한후 그길로러절한 서대문금융조합에가서 기회를 노리고잇든중 전기영야리츠가 오백원을 차저가지고 나가는뒤를밟버가 랭천정길가에서 주머만한 돌을집어가지고 미리 준비하엿든 보재기에싼후 전기회사원이라고하며 영야의집에가서 그가튼흉행을 한것이라고한다

버림바든 糟糠之妻 憤然、法廷鬪爭

어려서工夫간길이生離別길 도라오지안는男便거러提訴

현하사회에서 남자본위의 법률미테는 언제든지 불리한처지에 빠지게되는것이녀자이다 더구나 법망의 그루즈한점을 돌코저 발호하는 악성남자와 불량남편의횡포는 랑심적으로 볼때에 남자자신으로서도 미안하고죄송한정도를지나서 어떠케해서든지 무슨변법(便法)으로든지 이따위 남성을억압하야 버르쟁이를 끈처야하겟고 또 언제든지 뭇행불리한처지에 서게되는 녀성을 옹위하야 무슨방도로써 보호를하여야 하겟다는생각을 절실히가지게되다

더구나 이런불행불리의보수(報酬)로 파괴된정조의대가(代價)는 법적 판결에의하면 최하 일이백원으로부터 오백원이 보통이요 만허야 일천원내외에 불과하니 그얼마나 저렴한 갑이라하겟는가 백원내지 천원쯤이야 부조(父祖)의 덕택으로 돈냥이나 가지게된 사람중의 불량남성으로서는 문제도안되는 적은금액이 아닐가 하롬며 무책임 몰렴치한남성들은 현대법률의이러한약점을 리용하야 수만흔 녀자를 낙구어서 한때향락의도구(道具)로 삼으며 그런줄을 알어섯던 몰랏든간에 이따위 고약한 남자의 독아(毒牙)에 걸려귀중한 일평생을 망치거나 끈치기어려운상처를 밧는녀자의 희생이그얼마나 만흔가

◇—◇

이하에 소개하는 기사도 무수한 이따위사실의 한토막으로서 마침내 법정까지버려지게 된것이니 그소장에 의하야 사건의전말을보면다음과갓다

공부만하고오면 자미잇게가리 잘살줄알엇든 남편이 졸업한후에 가진학대를다하니 리혼을하는동시에 위자료를 밧도록하여달라는 가엽슨 구식녀성이잇다 경북봉화군춘양면의양리(奉化郡春陽面義陽里)정남진(鄭南鎭)(二三)라는 녀성은 그의남편인 부내계동정(桂洞町)일백일번지의칠호 김사국(金思國)(二三)을 상대로 이십구일 경성지방법원민사부에 리혼과및 위자료청구소송을제기하엿는데 소장을보면 원고와결혼하야 자미잇게가리 살며 지금은 죽엇스니 딸까지하나 낫고사러오든중 피고가 중학에 입학하게되여 소화팔년에 경성으로 소화구년에는 일본내지강산(岡山)으로다니며 공부를하야 중학을 졸업하고오더니 그는마음이변하야 원고를 학대하고 그의형 김사성(金思星)을 통하야 다른녀자와 결혼할터이니 리혼하자고 알라는 절연장(絶緣狀)을 보내며 원고가 병으로 병원에 입원하엿슬때에도 겨우돈몃십원을 갓다주엇슬뿐 한번도 돌보지 안흘뿐아니라 고생이되드라도 피고의집에가서 살려고 옷보통이를 가지고가면 의료비로 주어든 돈몃십원을 가저오라고 야단이며 문안에도 들어오지못하게하고 내어쫏처 이가튼남편과는 평생을가티살수업스니 그와 리혼케하여주는동시에 그는 지금도 삼백여섬밧는 부동산을 가지고잇고 또그의형에게서 벼천석거리나 분재(分財)바들처지에잇는사람이니 원고가 그동안 바든 육체상 정신상고통의 대상으로 칠천사백여원을 밧게하여달라는것이다

내숭한美少女

盜賊질이일수

부내종로경찰서 사법계에서는 이십구일오후여덟시쯤 부내서린정(瑞麟町)어떤음식점에서 작부로잇는 평양부 신창리(新倉里)의롤째딸 북녀(北女)를 절도혐의로테려다가 엄중한취조를 진행중인데 그는 두어달전에 서울로올려와서 부내의선정(益善町)사십일번지 김인숙(金仁淑)의집

(에서 ...)

佳約을저승에 이승을淸算

彌生町遊廓에서男女情死

이십구일오후여덟시쯤에 부내미생정(彌生町)삼번지 유곽화월루(花月樓)에서 창기 부용(芙蓉)(二○)본명=곡부방자(谷部房子)이와 부내모명사의려식 부강진(富岡進)(二○)이가 음독정사를하엿다 전차부통은 전차금이 일천오백원이나되며 정사한원인은 사랑은기퍼젓스나 남자의 가정에서 그들의 결혼허락을 안함으로더 다액의 전차금을 청산할길이업서서 그가티 천국에서사랑을매즌에 동기로(洞房)로 들어가잇다가 금비녀한개와 현금십오원을훔처가지고 도망한것을 미끼로 이처진 으로도라다니며 동정을 구하야 신세를 졸라고 주인의 눈을속혀 손거친짓을 하고다니든 터이라는데 여적가업을하야방금평양서에 조회중이라하며 그는 한번종로경찰서 숙직실에도 차저와서 자기의 신세이야기를하고하루밤 동정을 바든일까지잇는녀자라고한다

(It is noted this paragraph's columns are in the 美少女 article flow.)

것이라고한다

爆彈製造犯에 五年懲役言渡

작년팔월에 남경에잇는 민족××당간부의 지령을 바더가지고 상해일본총령사관을 폭격할목적으로 동지들과 폭탄을제조하엿다는 경남함산군 강동면신명리(蔚山郡江東面新明里)김순

靑葉町에棄兒

이십구일오후여섯시쯤에 부내청엽정(靑葉町)삼정목일백이십일번지에 사는 양정혜(梁正惠)의남편 김이조(金伊造)(三二)의집에도 정하여진 가방 정기시각에 전차도라와보니 그의집대문압헤 생후두달가량되는 조선녀아를 어떤자가 버리고 갓승으로 곳동산서에 계출하여왓다 동서에서는범인을 찾는일방 어린애는 정성부에 위탁하게되리라고한다

通貨僞造團求刑

最高十年·最低一年役

강원도철원읍(鐵原邑)에 근거를두고 통화수만원을 위조하야 그를행사하고 또 다른사람에게 교부하야 경찰부에 검거된 안관보(安觀保)등 사십명에관한 속행공판은 이십구일오후두시부터 경성지방법원형사부 계사호법정에서 증촌(增村)재판장주심 주견(酒見)검사관여미테 열리엇다 피고들은 곤(金鐘俌)에관한 처안황지범위반피고, 사건공판은 이십구일경성지방법원에서 사하(山下)재판장 주심좌등(佐藤)검사관여미테 열리는데 재판장은 검사의 구형대로 그에게 징역오년을 언도하엿다

중 황순문(黃順俊)은 병으로출정치못하고 엄여섯명만 출정하야 절차(?)안관보(安觀保)는 분리공판키로하고 사실심리에들어가서 오후다섯시까지 청부사실문를 마치는 데 안관보는 통화를위조한 사실을 시인하나 다른피고들은 대개무식한소치로 위조통화를바덧고 또이를행사하엿다고하야 그들의배후에 거제가잇다고하엿다 도중서 검사는 국가적견지로보아 이러한사건은 엄중한 처벌을 요구하야 최고징역 십년 내지 최저징역 일년을 구형하엿다 이에 변호사의 변론이 잇고 오는이월 오일에 내리기로되엿다

◆孫昌濤 懲役四年◆姜尙郁同三年◆李大淵 同一年◆安泰俊同十年◆金昌九 同二年◆李致範 同一年◆鄭俠男 同四年◆鄭用叔 同二年◆李斗煥 同二年◆金齊鉉 同二年◆車應順 同二年◆朴命根 同二年◆吳世權 同三年◆玄奉春 同二年◆檀五奉 同一年六個月◆宋道燮 同一年

朝鮮人口로보아서 寒心한高等普通教育

男子高普는十五校一七三學級 女子高普는겨우九校

로보한바와가티 총독부에서는 년도부터 십개년간 계속사업으로 초등교육과 중등교육을 대확장한다하나 그중에도 초등교육을 실시하야 고등보통학교 중학교나 실업학교는 우상십사학급이 만호나 공립녀자고등보통학교는 겨우 고등녀학교보다 못되는데 학급으로보면 중등학교에 들어가는 수는 남자고등보통학교 교 녀자고등보통학교는다 소화장을 보게된다해도 큰기대를 가질만한것이 못되는것이다 그런즉 인구와 비교하야 현재 일본내지인 중학교는 십이개교에 일백사십팔학급이며 조선인의 고등보통학교는 십오개교에 일백칠십삼학급이다 그리고 일본내지인의 고등녀학교는 이십칠개교에 일백구십칠학급이나 조선인녀자고등보통학교는 겨우구개교에 사십륙학급이다 이것은 이천이백여만명의 조선인녀자교육 그만큼이며 이것은 오십만명의 일본내지인의 교육시설에 비하면 일본내지인이 조선인의 약사십분지일밖에 안되야 현재 조선인 인구와 비교하야 실로 특히 조선인녀자교육 시설에 대하야는 얼마나 한심한처지에 잇는것 이 얼마나 한탄할일인가 그것보다 당연히 몇십갑절이나 만허야할것임에도 불구하고 도리허 학교수로십팔개학교나 부족하고 학급수로도 일백오십여학급이나 부족하다 이것이무슨실정의반의 모순인가 조선인교육 에 대하야 일본내지인과 비교하면 조선인녀자교육 시설에대하야 얼마나 극단으로 차별대우인지 알수잇다

勞働者待遇改善도 目下에切迫한問題

勞賃低、物價高로 鑛夫不足을豫想

一日六、七十錢으로는生活에威脅多大 "골드·러쉬"에도憂鬱

산금경기(産金景氣)의왕좌에올라안즌 조선의광산업은 변변팽창하고잇서 변산금액이 오천만원에서 칠천만원으로 다시신년은 일억원을 돌파하리라고하야 호화로운 산금조선의명예는 날로 내외에떨치고잇고 이에딸아 산금업계의 시설은일층대규모이고 또조직적으로 진행되고잇는 현상에잇다 이러한소위 산금조선의 비약적발전의리면에는 다수로동자의 로력과희생이 업시는도저히 성과를어들수업는것인데 현재 광산로동자의 수효로보면 소화십년말 현재의조사가 십삼만사천여명이엇고 또작년말 현재는 아직자세한 조사가업스나 당국은 십오만은 되리라는 계산이고 또 금년에는 작년말 현재보다 약이할 즉 삼만명은 더 필요하리라는것이다 이와가티광업계가 변변히 발전하는가운데 로동자의 수효가 늘어가는것은 당연한 요구이라 할것이나 그러면 이러한 거대한수의 로동자를 어데서 보충케될것인가하는것이 일면에는 중대한 관심거리가 되여잇다 변변히 피폐하여가는 농촌의농민이 토지를 떠나 로동자가되여 온것이 종래의 로동자공급의 유일한길이 엇스나 농민이 농촌을 떠나게되는것도 한도가잇는것이고 겸하여 금년은 관청의로몬사업도 방대한 액수에달하여 그역시 로동자의부족이 [illegible]는터이라 광산로동자의 공급은 또한 문제이다 현재광산로동자의 임금은 겨우륙십전내지칠십전이라는 통계수자가 잇스나 그실은 그보다 못한것도만흘것은 사실이다 과연 이러한적은 임금으로서 당장생활을위협하고 잇는물가의 중압을감당할수 잇슬것인가하는것도 문제이다 이모양으로 한편에 소위 산금조선의 명예는 놉하간다하며 또근자에는 금값조차 점점올으고잇서산금경기가 일층호전되고 잇는이때에 로동자는 부족한그우에 임금조차헐하다는것은 장차로자관게의 원활치못할것을 예상케하는것이어서 당연히 로동자의대우개선의 소리도 놉하가고잇다 즉로동자의 보호는 공업계를진흥보호식히는 의미도 됨으로 이때에 당국으로서도 로동자의대우개선문제를 십분고구할 필요가잇슬것으로 석자간의 주목을 끌고잇다

觀測機關擴充

支所新設·測候所擴張

조선에 기상관측기관시설이매우 부족하야 년래로 그확창신설등에 총독부에서는 고심하야 오든바 신년도부터 황해도서흥(黃海道瑞興)과 경상북도 울릉도(鬱陵島)에 관측소지소를 신설할터이며 제주도(濟州島)와 청진(淸津)에잇는 측후소도 확창하야 기수등을 증원할터이다

悲劇의煉炭禍!

눈물의夫婦모다潛跡 어둘三兄弟의亡靈을차저서?

지난십팔일 어린아이들의 주검을 발하려고한는 부모의 따뜻한애정이 도리혀 원수가되여서 련탄화(煉炭禍)로 말미암아 그만귀여운 어린자식셋을 일시에 일허버린 비극의주인공 신당정(新堂町)이백팔십륙번지 김동호(金東浩)(三七)와 그의처 안금출(安琴出)(二九)은 그후 실신한듯이 어린아이들의 죽은 령(靈)을 차저서 어디로인지 자최를 감추고마러 소관동대문서에서는 닥지하는동정금품의처리에 대단히곤난을 느끼고잇다 김동호는 어데잇나하고 사방으로 그들부부를 찾고잇다고한다

物價高의明暗相 의記事今日休載

七千餘觀衆雲集 記錄的氷上競技

勝利는東京펭귄軍에게

만도빙상펭의 선풍적 인끼를 집중한 본사주최와 백구구락부후원의 동경펭귄구락부초빙 빙상경기대회는 작이십구일오후두시부터 성동(城東)청량리정링크에서열린바 작보이후의 전적은 렬항과가트며 열전스무겹돌려싸인관중은 무려칠천을 돌파하는 우리빙상경기사상의 파기록적성황을 이루엇다 이날오백메돌레ㅣ스가 끗난다음 번외경기로행한 경성보육(保育)의 유해산(劉海山)리영제(李榮悌)량양과 중앙보육의김선하(金善河)양의 오백메돌레ㅣ스는 아직 요람기에잇는 여류빙상계를위하야 만장의 기염을토하야 만당관중에게 깁흔감명을 주엇스며 ... 장내에넘친관중 비판에 구김이뚜렷 ... 스에울이넘치 흐르 ... 을 예기하엿든호기록은 작성치못하엿스나 펭귄의 최룡진(崔龍振)군과 안중희(安重熙)양군이 이분사십륙초사의 동타임으로 사이조케 제일위를 차지하엿다 그리고 인끼의초점인오천메돌레ㅣ스에는 처음부터끗까지 모범적활주로 일주사십오륙초의 규일한 랍프타임으로 전정을연하드니 김정연(金正淵)군이 『라스트스파ㅣ트』에 교묘하게결승선에 드려오니 소요시간 구분이십구초륙으로 영예의 패권을 차지하엿다 이날마즈막종목인이천메돌레ㅣ는 빙질이납버서 도저히 경기를 진행키어려움으로부득이 중지하기에이르럿다 이로써 총득점 사십삼대 이의 큰차로 원래의펭귄이개가를 부르니 기념할펭귄군초빙전의마을나리엇다 펭귄군일행은 금삼십일 오후세시삼십오분복행렬차로 신의주로향하야 이월일일 오전열한시부터 압록강링크에서모범경기를 행하고 이월이일에는 평양에서 모범경기를행할예정인데 이월오일까지에는동경 향하야 도라갈터이라한다 (사진상은 오천메돌스타ㅣ트광경, 하는 량군의 기념촬영)

五百米 (세파레ㅣ트·타임레ㅣ스)

A組=1安重熙(펭귄)五〇秒 B組=1金永河(白狗)五一秒九 2金莊煜(펭귄)五三秒 C組=1鄭庚彦(白狗) 五一秒一 2張日弘(펭귄)五一秒三 D組=1崔龍振(펭귄)四七秒六 E組=1金正淵(펭귄)四九秒一 2金吉星(白狗)五四秒 【順位】1崔龍振(펭귄) 2金正淵(펭귄) 3安重熙(펭귄) 4鄭庚彦(白狗)5張日弘(펭귄) ◇兩軍得點=펭귄軍十三點 白狗二點

千五百米 (오픈코ㅣ스·타임레ㅣ스)

A組1張祐植(펭귄)二分四六秒四 2金莊煜(同上)二分四七秒3朴性用(白狗)二分五一秒八 B組1崔龍振(펭귄)二分四二秒1安重熙(同上)二分四二秒 3張日弘(同上)二分四六秒八 【順位】1安重熙(펭귄) 1崔龍振(同上) 3張祐植(同上) 4張日弘(同上) ◇兩軍得點=펭귄十五點、白狗軍零點

五千米 (오픈코ㅣ스)

1金正淵(펭귄)九分二九秒六 2張祐植(同上)九分二九秒七 3崔龍振(同上)九分二九秒八 4尹世權(同上) 5安重熙(同上) ◇兩軍得點=펭귄十五點白狗零點 ◇總得點=펭귄軍四三點、白狗二點 【備考】二千米릴레는 氷面龜裂로中止하엿다

頭腦の惡い人は 必ず鼻が惡い

코병을곳치면 頭腦는明快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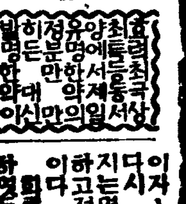
醫學博士 岡田 □一

『漢式온』이러한 분들에게는 더욱 氣分조케 治療가잘됨니다
◇코ㅅ물이 만히 나는분
◇코를풀어도 잘안나는분
◇記憶力判斷力이 업는분
◇頭重하고鈍痛잇는분
◇不眠症의분
◇냄새를못맛는분
◇蓄膿症외분
◇코ㅅ속에 腫物이잇는분
◇手術해도 再發하는분

無代進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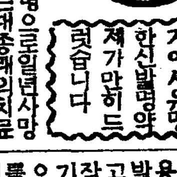
左와如한症狀으로 每日苦悶하는분 잇습니다 僅少한費用으로 짤막한時間으로 氣分조케 治療할수잇는方法이發明된以來 만흔患者들이얼마나 만히도움을 바덧는지모릅니다 頭腦가낫븐분이나 코가낫븐분 神經衰弱이 잇는분 또는兒童을가지신父兄諸氏는 꼭一讀하십시요 希望者는 朝鮮日報名記入『鼻病誌』보내라고쓰고 葉書로左記로 申込하시면 卽時無代進呈합니다 東京市日本橋區吳服橋三ノ七 漢式製藥東京營業所

보음보약 젊어지는약
가이제리 KAIZERI 가제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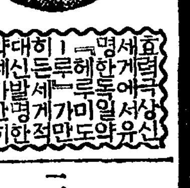
사람은 보통백살까지는 수명이 잇스나정력이쇠하야 오래못산다 원기가왕성하야 하고십흔일을하고 인생향락도 영구히잇게하여야한다 새로 신발명한 가이자ㅣ는 신체의쇠약한 조직을 다시 소생시키는 보옹보양젊어지는명약으로 양기를 왕성하게 하고정력을 씩씩하게하는 명약이다

폐병 부족증 늑막염엔
나오페리 NAOPERI 가제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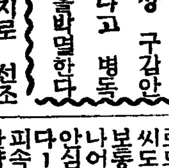
폐병은 불치의난병으로일년사망자가수십만명이되는대종래의치료가불완전하얏다 입때까지는 환부의균만죽이랴고드럿스나 그래서는 절대로안낫는다 살균도필요하나한편으로 몸도보하고잡식(雜食)하는 부분을 막는법이새로발명되엿다 즉살균、보혈포위제지(包圍制止)의 삼작용을일시에하여야된다 종래에는 여러가지로 이삼작용을 시키는대 제일약과음식과 일광욕을썻다

림질 대하증 냉병엔
구로베루 KUROBER 이제일



남녀 만금성림질 부인적백대하증 남녀냉병 오종소태 월경고르지못한데 하혈등으로 별치료를 다ㅣ하야보고 별별약을써도무효하야 돈만버리고 근치안되여 고통하는분은 이것저것주저할것업시 안심하시고 제일먼저 대신발명된 구로벨 Kurober을 쓰시오 구로벨가티 신속한약은 또다시업다는 효험을보신분들의 말삼이오니 확실한자신을엇고 장담하시고 쓰시오

매독엔
푸로테리 PROTERI 가제일



매독은선천후천 두가지로 유전또는 전염으로발생하는 세상제일무섭고 지독한 병인데 ...

약을써보시고 만일 무효면 어더한 책임이든지 짐니다

發賣元 京城府西大門町 神崎神聖堂藥品直輸入株式會社 電話光化門

早朝乘賃割引制 京電은難色態度

理由는時間紛爭念慮라고 商議에도交涉方針

경성상공회의소 교통부(交通部)에서는 삼십일에 부회를열고 선진도시의 례에따라서 경성전차도 조조할인(早朝割引)제를 토의하야 경성전기회사에 교섭하기로 되엿는데 이십구일오후 기자는 경성전기회사 견패(見貝)상무를맛나 회사측의 의향을무러본즉 그는 다음과 가티이야기하엿다

동경(東京)대판(大阪)등지에서 오래전부터 실시하고 잇스나 여러가지 폐단이 만하서 도로혀 후회하고잇는곳도 잇다 우리회사에서는 『트라블』(말성)이 생길 념려가만코 또한승객의 수효도조사해 보아야하겟스므로 진즉부터 연구는하고잇스나 좀처럼 실시하기는 어려운문제이다 경성상공회의소로부터 정식으로무슨교섭이 잇게되면 그에따라고려도하겟는데 무엇보다도 전차승무원과 승객사이에 시간문제로 서로승강하게될 폐단이 만케다는것이다 좀처럼 실시하기 어려운문제이다 고잇스나 좀처럼 실시하기는 판사기를 하다가 맛참내 지난 이십칠일 인천서에 체포되얏다

町總代聯合會를 府內五處에分設

北部總代가提議方針

경성부 북부정총대(町總代)삼십 명은 이십구일 오전에 경성부회의실에 모히어서 경성부의 행정구역이 확장되엿슴에 중부의 정총대련합회를 중부(中部)동부(東部)서부(西部)룡산(龍山)등 다섯구역으로 눈호아서 련합회를 다시조직하자고 계획하엿다 그리하야 그것을 경성부전정총대회에 제의하기로되엿다

官需景氣"竊盜犯

—鐵物價가暴騰되는바람에— 銅線專門少年賊團

【開城】요지음 군수의인플레경기영향으로 철재(鐵材)가 삼갑이나 폭등한다는바람에 개성고물상(古物商)들은 『룸펜』소년들에게 약간의선금을 주어가며 『가스메』까지 주서오라고한다는소문이돌리는반면 군것질 잘하는 불량소년당 한때는 쓰레기통을 뒤지다못해 나종엔 대규모의전선(電線)절도로 전문직업을 삼어온 사실이 개성서에 발각체포되엿다 부내궁정(宮町)삼구이번지 리종만(李鍾萬)(一六) 동정동번지 김영배(金永培)(一七) 동정 박영하(朴永河)(一五)등 삼소년은 지난이십오일 오후세시경 남산정(南山町)『개성고무공업회사』뒤근에 노여잇는 전등회사공사차(電燈會社工事車)에 올려가 동선(銅線)(시가십여원)을절취해가지고 도망하는것을 때마츰 순행하는 경관에게 발각체포되여 이래 박사법주임의 준렬한취조를받고잇는중 자백한 사실로보면 이들은 고물만 주워가면 돈을 만히준다는바람에 매일가티 전기전등회사의공사장만 뒤쪼차다니며 전공이공사하는틈을타서 교묘히 전선을절취해다 서본정(西本町)조태원(趙泰源)고물상에 갓다 헐가방매하야 군것질에전부소비하얏다는것인바 자백한범행건수만 여섯번이나된다한다

往十里廢道問題

住民이當局에陳情 間道를私個人에拂下

수일전 부내 상왕십리정(上往十里町) 하왕십리정(下往十里町)의 각총대조중벽(趙重璧)리의선(李義善)량씨와 신당정(新堂町)일백십삼번지 윤주명(尹柱明)외 제씨는 도당국자의(道當局者)세무당국자(稅務當局者)를 각기방문하야 다음과가튼 진정을 한바가잇섯다 즉 현재상왕십리정(上往十里町)으로부터 신당정(新堂町)에 통하는 신당정(新堂町)일백십삼번지압 길을 금반 돌연히 당국에서 폐도(廢道)처분을하고 그것을 신당정 김모에게 대부하엿다고한다 종래 전기도로는 상왕십리정하왕십리정과 신당정(新堂町)방면으로 통과 최단(最短)도로로 그부근주민의 리익과 밀접한관계를가지고오든것을 전기와가티 돌연히 폐도처분을한 남어지 일개인에게 대부하여가는사실은 날로 발전하여가는 동부(東部)주민의 경제적 교통적 리익을무시하는것이니 당국에서 재삼고려하야 근방주민의리익에 배치안되도록 처하여주기를 바란다는것이다 그러나 그날은 별반 이러타할결과를 보지못하엿슴으로 근방관계주민일동은 자기들의 생활문제에 영향미칠 큰문제라고 하야 근일중 재차당국에 강경히 진정하야 초지(初志)의 관철을 기하리라고 하는바 좌우간 문제의 귀결여하가 대단주목되고잇다

金村繁榮會誕生

創立總會開催各項決議

【金村】파주금촌시(坡州金村市)는 농산물급 그부업물의집산 농촌일상용품의매상의중심으로 변래파주군전역의리근시가에 비하야 가장 놀날만한 번영을 보이고 잇는데 이에 따라서 시일관계시구의 협착 기타제반시설은종래의 구태를 버서나지못하고잇슴을 심히 유감으로 여여오든바 근근교하(交河)가도 대교량의 준공과 면사무소의 신축등을기회로 금촌유지들의 희생적노력으로 현안으로되여오든 금촌시번영회를 지난이십오일 오후칠시 금촌보통학교 대강당에서 창립하고 좌기각항을 역원을 선임한후 동십일시 무사산회하엿다고한다 특히 이십육일 파견될 교섭위원사씨를 중하야 진정되는 금촌일대 수백여주민의 진의를참작하여 군당국(郡當局)의 성의잇는 협찬을밋고기대하여마지안는다고한다

決議案

一、從內通用해오든奉日川(恭陵)市日二日、七日을 金村市日로利用치안홈으로서 奉日川市에惡影響을 주지말고 一月六日로金村市를勵行케할事

一、市區擴張改定에關한件

一、市街擴張續道橋梁의擴大普請道局에 陳情交涉하여 排水構를完備케할事

一、屠殺場誘致에關한件

一、市日變更과함께問題되는金村市況과 至大한影響을가진補囚其他農會共販日의 變更을陳情할事

一、金村市日의盛況을爲해全市를擧하여景品付大賣出等의對策으로서 市日에 顧客誘致策을圖謀할事

一、市民으로부터 每戶月定額의會費를 納付케하는以外 素人劇其他方法으로 繁榮會基金을

役員

會長＝金... 副會長＝嚴圭浩 幹事＝尹岐燮 金... ▲評議員 孫光燮 馬谷達 申泰永 李鍾益 崔昌九 咸永文 金完奎 沈相德 李時永 崔永鎬 崔基先 吳昌... ▲財務 丁奎完 ▲書記 李... ▲顧問 衙洞面長 衙洞駐在所部長 金村公普校長 金村金融組合理事 物檢査所長 ▲交涉委員 宋基彪 盧圭昌 崔昌九外一人

街頭에"버린" 廿四個生命

昨年中仁川의棄兒

【仁川】부모를 잘못맛나고생하는것도 원통하것만 생후죽시로 가두에 바려진 생명이 얼마나 가련하랴 이제인천서구내에 작년중 가두에 바려진 기아(棄兒)를보면 옹통자가 십일명 떠님이 십삼명 도합이십사명에 달한다는데 그중에는 생활난으로인한것이 불과십명에 지나지안코 그외는 전부가 불의의로 세상의체면을 유지코자 가두에바리게까지 된것이라는데 과연바려진 슬플네생명가운데에서는 몃명이나 이세상에 남아잇는지 참으로 눈물을금치못할만한사실이라한다

故人된公職者 二百七十二名

昨日盛大한慰靈祭

기보＝경성부에서는 이십구일 오후한시에 부민관대강당에서 죽은공직자(公職者)이백칠십이명의 위령제(慰靈祭)를 불식(佛式)으로 장엄히거행하엿는데 참석자는 유족칠십명과 일반참렬자로 이백여명이엿다 감자(甘蔗)경성부회부의장、소천(小川)정총대회대표등의 조사(弔詞)가잇고 화산(華山)주지의 법화(法話)가 잇슨뒤 부윤 공직자유족대표 고성헌지(古城憲治) 부관계직원대표 금곡장(金谷章)부회부의장 대야 전 리(李升雨)제씨 기타정총대회대표방면위원대표등의 분향(焚香)이잇섯다

밀가루값올르고보니 국수값올릴궁리

市內製麵業者들이會合

최근밀가루값은 오할가량 모로가른밀가루값은 이할이나 올낫슴으로 부내에잇는 이십오개소 일본내지인 국수장사들은 이십구일오후두시부터 본정(本町)사정목국수장사 집회소에 모여서 원료가격등귀에대한 대책을 강구하게되리라고하는데 대체로 일할내지 이할의 가격인상을보게될지도 모른다고한다

運動競技

朝滿氷上對抗戰 朝鮮代表出發 三十日午後七時

第二回朝鮮對滿洲氷上對抗競技大會는 明三十一日午前九時부터 鴨綠江鐵橋上에서 開催될터이라함은 旣報한바어니와 朝鮮代表스피-드部 在京選手數名은 監督金龍九氏引率下에 今三十日午後七時四十五分 京城驛發列車로 戰地安東으로 向發할터인데 一行은 競技終了後 二月一日七時二十五分 京城驛着列車로 歸還할터이라고한다

▲監督＝金龍九 ▲選手＝李仁源(平壤) 崔炅洙(延專)金基瀚(義州)尹明洙(江界)金河吉(江界)金聖奎(安州)▲同女子部＝孫仁貴(榮專)金炳烈(京城女高)前田(龍谷)渡邊(同上)鈴谷(龍小)橋爪(龍谷)粟山(同上)

今日의運動

▲籠球＝延專籠球部主催市內中等學校選拔팀 對延專籠球戰 午後七時 鐘路靑年會館內코-트

京畿道衛生課 道內公醫講習

二月中에實行計畫

경기도 위생과에서는 도내에잇는 공의(公醫)를 전부 소집하야 이월에 들어서 도내공의강습회(公醫講習所)와 협의회(協議會)를 열기로 결정하고 방금 그준비에 분망중인데 경기도내의 국비(國費)의 공의가 이십칠명 도비(道費)의 공의두명 합계이십구명이 전부이강습협의회에 참석하게될것으로 그강습내용은 의료기관의 민중기회균등의에 원측을 두고 의료기관의보급 도내의 전염병예방로 질직마라리아등 지방병(地方病)의 조사와 및학교위생에 대하야 강습이 잇슬터이며 외떠러진 시골에서 새로운의학지식에 뒤떠러저잇는공의들로하여금 신의학의일단에접촉 식혀서그자극을 이르키고 여러가지주의를환기하야 새로운 지시를하며 또는각공의의 사무타합을할터이라고 한다 꼿나는대회와 협의회가 꼿난다음에는 꼿시내대학(大學)병원이며 의전(醫專)병원 순화원(順化院)등에서 하로동안 실지견학을식힐터이라고한다

腸窒扶斯 撲滅防疫陣

市內各署管內를單位로하야 全府民에豫防注射

이십팔일 오후한시부터 경기도경찰부에서 개최된 부내각서위생주임회의에서 금번도 장질부사예방책을 다음과가티 결정하야 실시하기로되엿다 즉오는사월오일부터 약이십일동안 시내각서를 단위로 다섯반(班)내지 여섯반의 방역진(防疫陣)을 꿈들어가지고 부내 각단체학교를제외(除外)한부민 사십만의 집집을차저서 장질부사의예방주사를 실시하야 만전을기하기로 하엿다고한다

婦人問題討議

今日第一回會合

부인문제를 중심으로 생활、교육、수양등 여러가지 문제를검토하고자 부인계각방면 중견지도자급 이십여인이 이십구일오전십시부터 부내 서린정(瑞麟町)회보관에모히어 연구협회를 개최할터이다 이들은 장차부인계 여러가지 문제를연구실행할 상설기관을 조직하야 일반이 대망하든 여러가지일을 연구검토하리라는데 그중심인물은 다음의제씨이다

梨花女子專門學校 方信榮 進明女子高等普通學校 趙圻烘 誠信女學校 李淑鍾 京城女子高等普通學校 孫貞圭 同德女子高等普通學校 宋今璇 梨花女子專門學校 高凰京 社稷町二六二 洪姓嫄 淑明女子高等普通學校 金蘇實 梨花女子專門學校 金活蘭 苑南町二九 金福仁 中央保育學校 車士百 梨花女子專門學校 徐恩淑

同生搜索願

경북영주군영주면(慶北榮州郡榮州面)에사는박덕수(朴德洙)(二三)는 이십팔일오후세시쯤에 동리부랑자의 꼬임에빠저 집에잇든현금오백오십원을 훔쳐가지고 서울로도망하엿다는데 이십팔일 그의형인 전기덕수가 상경하야 경찰에이사정을 호소하여왓다

自殺五十一件筆頭로 非命橫死二百餘

昨年中仁川署管內서

【仁川】제명대로 죽어도 비참하거든 하물며 제명아닌 비명횡사하고 심하면 자기손으로 자기목숨을 끈는죽엄이라면 얼마나 더비참한일이랴! 이제 작년중 인천서관내에서 비명횡사한총수 이백십삼명중에 자살이 오십일명에 달한다는데 자살의원인은 신병으로 비관자살이 최고이요 생활난자살이 그다음을점하고잇다는데 상세한 내용은 다음과갓다한다

自殺	五十一件
縊首自殺	十四名
毒藥同	十五名
入水同	十三名
汽車同	十一名
短刀自殺	五名
其他	三名
過失死百六十二名中	
凍死	五名
過失溺死	八十七名
中毒死	十三名
過失橫死	四名
途上發病死	二十七名
壓死	十二名
火災窒息死	一名
其他	十三名

그중에도 자살원인을 조사하야 보건 다음과갓다

病悲觀 十二 生活難九 家庭不和六 將來悲觀九 未詳十二

銀行會社大建物等의 自衛消防을講習

—旣設裝置로利用不能으로—

화재의경계와 방비의효과를 가진자는 평소에 경계를 엄중히하야 미연에 방지하는것은 물론 만일불이 낫슬때에는 소화설비의 응용을 그릇되지안케하야 피해를 최소한도에 끄치게할것인데 자칫하면 당황하야 혹은그방법을 그릇처서 만드러 노흔설비도 하등의효과를 내이지 못하고 드디여 큰일을 이르키는일이만타 이러한일은 무엇보다도 사람의훈련이부족한데 원인되는것이 사실이다 이번 경성소방서(京城消防署)에서는 이월사일오일 륙일의삼일간 매일 오후한시부터다섯시까지 부내의백화점 병원 학교 대회사등의 자위소방에 맛터잇는 자에게 대하야 화재예방 소방 방어 피난방법등에대하야 강습회를개최하게되엿다는데 때가때인지라 이것이 적당한기회라하야 강습의 신청자가 쇄도한다고한다

不老藥고장도無色 年死亡者千餘名

蔘都開城의昨年中의生死表

【開城】근화만을 산하는 개성인구중 작년일년간 생사기몇生 死者의무상변은 어떠한가 『호적계』에나타난것을 보면 불로약인삼의고장이지마는저승길은간이가 일천구인 갓나온새 생명이 일천구백륙십팔인＝결국 출생인구가 구백오십팔인의 급진적증가를 보엿다 이것을보면 현재개성의 인구증가는 죽엄의 배수로증가한다는것을 알수잇다 그런데 출생자종별은 다음과갓다

▲嫡子＝一千八百六十三人 ▲庶子＝九十五人 ▲私生子＝十一人

計 一千九百六十八人

싸홈판專門의 巧妙한詐欺漢

【仁川】술집으로다니며"싸홈" ... 하야 노코는 중재하는 사람들의 외투혹은 주의를 비러입고는종적을감추워 버리는등 실로"항구"가아니면 보지못할"싸홈"

東海鰮漁大豊 六百五十二萬樽

價額一千九百十四萬圓에到達 不漁憂慮는雲散霧解

昨年秋期에 一時는 不漁를傳하든 東海漁業의 王者鰮魚의 漁獲은 其後 好轉하여 咸北道만도 昨年七月二十一日의 始獲期로부터 十二月十四日까지의 巾着網船에依한 漁獲高는 二百九十六萬八百二十五樽에 一千二十三萬三千六十圓으로 前年의 二百十七萬五千百五十九樽에 五百八萬五百四十圓에 比하야 數量으로도 多獲이엇거니와 價額은 前年보다 四五割乃至倍의 高位에잇슨때도잇서 每樽平均四圓內外로 合計에잇서서 倍額이나되는 一千萬圓突破의 記錄을지엇다 다시이것을 細別하여보면 一隻平均 四萬二千五十六樽으로 前年의 三萬八千八百四十二樽보다 二千二百餘樽의 增加를보앗다 그리고 咸南以南의 狀況을보면 年末까지가 二百七十八萬 一千七百七十四樽이고 一隻平均一萬二千餘樽이나 三月까지면 一隻平均五千樽은 더收獲이잇슬터임으로 船數百三十二隻에對한合計는 三百五十六萬四千樽에 達할모양이고 價格은每樽價二圓五十錢으로 計算하면 八百九十一萬圓으로 咸北것을 總合하면 昨秋以降 十一年度의 東海鰮漁獲高는 六百五十二萬四千餘樽에 一千九百十四萬三千餘圓에 達하는 豐獲이엇다

一月分定量鰮油 入札價四圓五錢 東京旭電化와契約

【水産課發表】 一月分定量鰮油二十二萬三千餘缶(入札數量十五萬六千四百缶)은 水産課에서 入札한結果 一等品一缶에對하야 朝鮮沖渡價四圓五錢으로決定하고、東京旭電化株式會社와隨意契約키로되엿다

間島對外貿易增加

【龍井】 間島의 貿易은 滿洲事變以後에 治安維持人口의 增加 交通發達、産業開發及 土木建築工事의 增加等으로 昭和十一年中의 對外間島貿易額은 大槪다음과가타야 輸出入合計가 五千三百七十二萬三千餘圓인데 그中 輸出이 二千七百三十八萬三千餘圓 輸入이 二千六百三十四萬一千餘圓이다

輸出 二七、三八二、九八〇圓
輸入 二六、三四〇、一八五

이를 昭和十年中 貿易額 四千二百六十三萬九千四百十八圓에比하면 一千餘圓의 增加이다

咸南道米實收 七十萬七千石

【咸興】 昨年咸南道米穀實收高는 二十五日 發布된바 總生産高七十萬七千二百二十八石으로 第二回調査에比하야 五分四厘 即四萬百十三石의 減收이오 前年度實收高에 比하면 四千四百七十一石의 增收이다 그中 水稻는 五萬八千九百四十四町步에 七十萬一百九十一石이며 陸稻는 八千一百二町步에 七千一百五十七石이다

鰮巾着網出願接踵 六百件突破豫想 今年은許可緩和豫定

朝鮮沿岸의 鰮巾着網은 咸北七十二組、咸南、江原、慶南北을區域으로하는 百三十二組、計二百四組가 操業에 當하고 잇는바 來三月一日부터 許可期限이 更新되게됨으로 目下各區로부터 許可出願이 續續 水産課에 提出되고잇서 同課에서도 今年은昨年보다 許可件數를 若干增加할 豫定이라한다 그리고 各道로부터의 出願은 鰮漁業의 好成績에 鑑하야 昨年의出願六百件을 훨신 突破하리라고豫想되고잇다

小資本集合 巾着網出願 漁大津刺網業者結束

【漁大津】 近年 鰮漁業에의 大資本進出로 因하야 從來의 中小刺網業者는 漸次 沒落하게되아 漁村은 極度로 衰微하여지고잇다 이에對하야 咸北漁大津의 中小漁業者는 지난 二十日 當地公會堂에 會合하야 各其刺網業을 充實히하는 一方 小資本을 集合하야 鰮巾着網의 共同出願을하야 漁業權을 獲得하는 同時에 共同漁業組合을 組織하야 漁村復興에 邁進하기를 決議하엿다 出願에잇서서 代表者 金河哲氏外 二十名이 共同으로 出願하기로되엿바 近日中 當局에 接受식히고 關係當局에도 陳情하다고한다

過去二個年間의 고무工業者異動 工場五·業者十二減少

京畿道 京畿道에잇는 護謨工場은 京城十七、開城一、仁川一、計十九工場으로 工業者數는 三十名이다

此를 昭和九年末의 二十二工場 四十二名과 比較하면 工場數로는 三工場 工業者數로는 十二名의 減少이다 工場數의 異動은 仁川丸八護謨 京城東亞護謨 萬世護謨의 廢業에對하야 京城金剛護謨의 新設을 除한數로써 三工場의 減少이나 共榮護謨의 廢業은 六合護謨에서 京城護謨의 廢業은 世界護謨에서 各各買收하얏슴으로 數에는 變化가업는바이다

工業者數의 異動은 主로 工場의 經營者營業으로 因하야 減少한바 業態로보면 護謨靴製造業者이다

生産能力의 點으로보면 實際護謨의 로ー루四臺 萬世고무의 로ー루三臺 丸八고무의로ー루一臺의 減少이나 增設의 部로는 京城護謨의 二臺 中央護謨의 二臺 世界護謨의 二臺 朝鮮고무의 二臺이 特히 小로ー루에 增設이 反하야 大로ー루는 減少이라 能率上에는 大한 增加라할것이다

平壤 護謨工場十四 工業者數十四名中 一工場 一名은 再生護謨를 製造하고 他의十三名은 護謨製品製造業者이다 此를 昭和九年末의 十七工場에 比較하면 三工場의 減少이다 生産能力上으로보면 國際東洋共榮의 三工場은 主要機械를 거처 買收하야 各各擴張을하얏슴으로 生産能力은 三工場은 로ー루增設하얏다

咸鏡南道 咸興一、元山一、計二工場 工業者數二名으로 異動이無하다

忠淸南道 江景一工場 異動無

全羅北道 裡里三、群山一、計四工場 工業者數三名 昭和九年末에 比較하면 一工場 一名이 減少이나 生産能力으로보면 廢業工場의 小로ー루一臺가 減하고 京城고무大倉에 增設로되엿슴이다

全羅南道 木浦二、光州一、麗水一、計四工場 工業者數三名으로 昭和九年末에比하면 員數에잇서서는 異動이無하나 生産能力은 增加되엿다

慶尙北道 大邱四工場 工業者數四名으로 昭和九年末에比하야 工場 一增加(天一護謨前年八月부터開始) 生産能力倍增

慶尙南道 釜山九、馬山一、晋州一、東萊一、計十二工場 工業者數八名 昭和九年의 十二에 比하야 馬山一、晋州一、釜山三、和鮮六工場의 廢休에 對하야 昭和十年末生護謨、天一護謨、昭和十一年大正護謨가 新設되엿슴으로 數에잇서서는 異動이無하다 生産能力은 三和第一의 二十吋로ー루四臺를 撤去하야 新設工場의 設備增加로써 倍增

以上工場數六十으로 昭和九年末의 六十五에 比하야 五工場減인바 工業者合計六十四中 三和護謨工場 計十一、天一護謨工場 計五로서 工業者數六十四名으로부터 十四를 除한 合計五十名으로서 昭和九年末의 六十二名에 比하야 十二名의 減少인바 生産能力은 忠南、咸南을除한外는 全部激增하얏다하겟다

肥育牛品評會 平壤家畜市場서 二月五日에開催

【平壤】 農家副業의 振興과 平壤牛肉의 聲價昂揚을 爲하여 大同郡農會에서는 畜牛肥育을 實施中이든바 相當한 好成績을 보엿고 따라서 昨年보다 成績이 顯著한 進展을 보엿스므로 當業者의 努力을 激勵하는 意味에서 品評會를開催하고 또今年度第二回 販賣도 實施하기로되여 準備中인데 二月五日午前十時부터 平壤家畜市場에서 品評會 午後一時부터 褒賞式을 擧行하기로되엿다 그런데 이날에 出場頭數는 肥育牛六十頭 去勢肥育壯牛四十頭 合計百頭이라한다

貨殖

重複質問말고 一回一問으로 簡單明確하게

◇毛皮賣入所

問 毛皮時勢表發行所及買入所를 下敎하시오 (高興一讀者)

答 京城府堂山町 二〇九朝鮮皮革株式會社에 問議하시오

◇果物都賣商에許可가必要한가

問 本人은 京城新編入府內에서 果物都賣商을 經營코저하옵는데 거기에 무슨 規定이 잇스며 府의 許可與否가 잇슴니까 下敎하야주시옵소서 (新村 畜畜生)

答 府의 許可를 바더야되는規定은 업습니다 그냥 店舖를내고 經營하시면 됩니다。

大豆出廻頗旺盛 每日百車來着淸津埠頭에山積 今年積取槪量八隻에六萬餘噸

北朝鮮에는 近者에 滿洲特産物의 出廻가 만흔中 大豆의 出廻는 新年에들어 그最盛期에 達하야 淸津港에는 每日 七十車乃至 百車나 來着하여 去廿日現在 이미 淸津埠頭에 集荷된것만도 四萬八千噸으로 今年中 積取槪量은 八隻에 六萬二千四百噸이다。

이미 出荷한것中 去十八日에는 希臘國船『아르히이오스』號(五千百十六噸)가 八萬三千五百三十二袋 五十八萬四千七百三十四圓을 積載하고『포ー트사이드』로 向하엿다 그리고 今後 大豆積取豫定船八隻中에 外國船이 二隻이나잇다 이가티 輸出되는 大豆는 모다 製油原料로 使用되고잇다。

李殷序氏等의 不斷한 努力으로 昨年과 如한 大凶年이엇슴에도 不拘하고 回收成績이 매우 優良하얏다하며 同會議는 午後四時頃에 至하야 閉會하얏다。

東邦電力

▲江景 지난二十三日 忠南江景朝鮮産業株式會社創立第十二期株主定期總會는 該社二層大廳에서 二百餘株主의 參集裡에 社長 尹吉重氏 開會辭로開催되얏다 該社는 距今十一年前에創立된 總資本金五十六萬圓의 朝鮮人經營으로 忠南에 唯一한 産業金融機關으로서 昨年度貸出高는 三十餘萬圓의 巨額에 達하얏는데 社長 尹吉重氏와 專務取締役 姜永楨氏 및 支配人

▲淸州 忠北蠶業同業組合에서는 오는二月三日 第七回評議員會와 第四回通常會를 開催하기로되엿다는바 附議事項은다음과가다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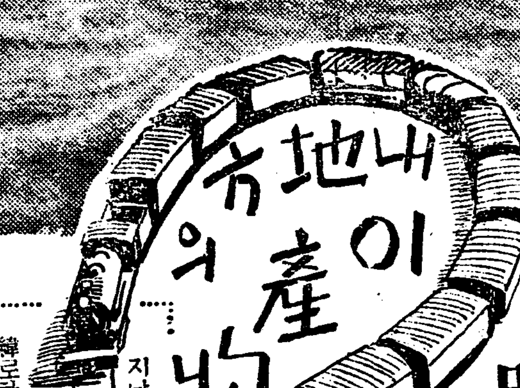
一、昭和十二年度收支豫算案의 設定에關한件
一、昭和十二年度組合費及手數料에關한件
一、事業資金借入에關한件
一、組合長選任及評議員補缺
一、蠶種審査規定改正
一、共濟救助基金助成의件
一、蠶絲製造額의協定

浦鹽抑留船問題 朝郵에서도重大決意

浦鹽의 北日本汽船 사이베리야丸及朝鮮郵船金剛山丸抑留事件의 善後措置는 繼續하야關係當局과 關係船會社에서 各其對策을考究中인데朝鮮郵船에의 情報에依하면 蘇聯政府는

一、日船의入港船을 定期船으로 看做치아니함
一、日船會社의唯一代理店인 商船組의同港의事務所를認치안음
一、日本人의浦鹽의居住權을認치안음

以上과가튼 方針을 決定하얏다하며 特히 北日本汽船에對하야서는 苛酷한 處置를 取코저 한는모양으로 사이베리야丸은이미 二十八日敦賀를 出帆하얏는바 事實上 日本船의浦鹽入港은 徵收되는 諸費用關係로 不可能하고 臨時船으로서는 入港되드래도 採算이 안되는터로 歐亞連絡의 要衝인 同港에서 出入은 蘇聯船舶部에 依하야 하게되리라하야 朝鮮郵船으로서는 卄九日 幹部가 協議한後 態度를 決定할터이며 浦鹽寄港은結局斷念하리라한다



明太本據는元山 元山의大動脈은明太

自古로元山人이心血을傾注 今日은確固不動한地盤築上

元山特派員 卞龍甲

지난 十五日로서 夜間明太漁期는 끗낫다 이것을 機會로 明太魚에 對한 具體的事實을 詳論해봄도 無意味한 紙面消費는 아닐가한다 이에 記者가 實際로 본것을 緯로하고 業者또는 水産關係技術者에게서 들은것을 經으로하야 이小論을 써보는바다 幸히 이 一論이 一般讀者에게 多少나마 明太理解上 一助가되면 하는 생각으로 未熟한붓을 드는바이다

※明太漁業槪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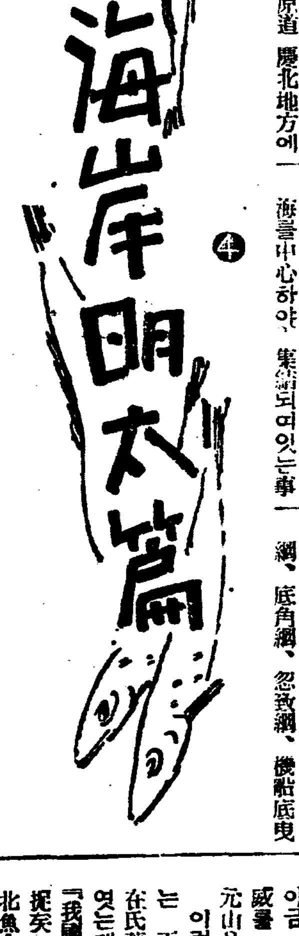
朝鮮사람치고 明太를 모르는 사람은 업다고본다 그만큼 朝鮮에잇서서 明太魚는 四季中 消費大衆의 貧富貴賤이업시 一般食卓의 一彌를 늘차지하고 잇스며 또한 冠婚喪祭와 贈答用으로도 널리使用되여 그用途와 品位는 食料品으로서의 價値를 一層高揭하고잇다

그러면 一般이 가장 만히愛用하는 이明太는 어떤곳에서잡고잇는가? 明太는 카나다西部와 베링海 오호츠크海를 지나 日本海의 全域에 分布되여잇는 鱈科에 屬하는 寒帶性中層魚로서 朝鮮에서는 江原道沿岸으로부터 咸南北沿岸까지의 사이가 分布密度가 濃厚하다 이事實은 이地帶를 中心으로 明太漁業의 殷盛을 促하얏다。

明太는 朝鮮沿岸에서는 攝氏十度以下의 低溫海水中에서 棲息하는데 普通二度를棲息適溫으로한다 朝鮮海東岸의 棲息水層은 北部咸北地方에서는 表面에서 五十米層이고 中部咸北咸南地方은 卅米乃至 二百米까지고 南部江原道 慶北地方에서는 百米層으로부터 三百米層어간을 普通으로한다 그棲息水層은 朝鮮東海岸의 低冷水우에 엿게 파고들어가 흐르고잇는 暖流系水帶의 消長에 依하야 變化하는것으로 冬季暖流系水帶의 勢力이 弱할때는 고기는 上層에 近接하고 夏季暖流系水帶의 勢力이 强할때는 깁게 잠기는傾向이잇다 棲息密度가 濃厚한것은 暖流系水層의 直下인 水溫躍層이다 그리고 朝鮮明太의 廻游는 春季로부터 夏季末頃까지는 主로東海岸中部以北의 深海中層에잇스며 初가을부터는 漸次沿海에 接近하야 一百米等深線附近의 海底에 群集하고 冬季卵熟을 따라 다시水深五十米沿岸에集結하야 産卵하게되는데 그主된 産卵場은 朝鮮灣內의 白安端沖海의 水深五十米乃至百米어간으로 大部分의 明太는 이곳에서 産卵하게된다

以上과가티 明太가 咸南東海를中心하야 集結되여잇는事情은 朝鮮明太漁業의 本據를 咸南에 두지 안흘수 업게하얏고 또咸南으로하여금 明太의 名産地로하얏다 그리하야 明太漁業은 咸南東海를 中心으로 明太群의 流動과 集結濃度를따라 行하얏나니 即 九月頃으로부터 翌年四月頃까지의 約八個月間에 行하는데 全漁獲高의九割은 産卵의盛期인 十二月부터 一月까지에 잡힌다 이러케 漁期間에하는 漁業이로되 그漁獲高는 朝鮮魚類別漁獲의 第三位를 차지하야 朝鮮漁業에잇서서 明太漁業의重要性을 말케한다

이漁業의起源은 分明치안흐나 傳說에依하면 지금으로부터 約二百九十餘年前 咸北明川郡沿岸에서 延繩으로 漁獲한데서부터 始作하얏다고 한다。그後 이漁業은 漸次南部地方에 傳하야 現在는 江原道까지 미처잇스며 이漁業에利用되는 漁具로는 延繩、刺網、底角網、忽致網、機船底曳網、等으로 昭和九年度 漁具別漁獲高는 機船底曳網이 斷然其他漁具를 누르고 第一位를 占領하얏스며 次位는 延繩、釣、第三位는 刺網、第四位는 底角網、末位는忽致網이다



④

※明太와元山※

누구나 明太와北魚를 말할때는 元山을聯想한다 그것은 元山과明太生産과의 關係가 密接한데서 由因한것이다 即朝鮮에서 明太漁業을 말하자면咸南을 論하게되고 咸南을論할때에는 明太의 集散地元山을 빼여노흘수업다 이러케 元山이 明太로 有名해진것도 偶然한것이아니다 數百年동안元山商人은 明太漁業에 寄與한바도 크러니와 그製品販路開拓에 商品製造에 적지안흔 精力과物質을 消費하얏다 그結果築上해논 地盤이 오날로하야금 元山明太의 聲價와 權威를 發揮한것이며 明太라면 元山을 말하게한것이다

이럿듯 元山과明太와의 關係는 百餘年前에 著述한 諸三在民著 松南雜識에도 記載되엿는데 그에日

『我國元山島所産而明川地 古不捉矣 明川太姓人 始釣得 如北魚大 而肥美 故名明太』라 하얏다

이에依하면 明川太某가 처음낙시로 잡어서 일홈을 明太라名하얏고 그所産地는 元山이라고하얏다

이러한史實로보던지 또는 現下實際事情으로보던지 元山은明太와 不可分關係가잇다 그러면 元山의 明太産地로서의地位는어떠한가? 元山에는 直接 明太漁業에 關係하는사람은 極少數다 그러나 明太漁場이 白安端沖海인 關係로 元山과의 距離가 그다지遠隔하지안흔것과 自古로 元山에는 明太製造業 貿易商을하는者가 만코 그우에 元山漁港의設備가 良好함과 金融機關의 整備로 資金融通에 支障이업다는 好條件은 元山商人으로하야금 널리 西湖、退潮、新浦、前津、六坮、三湖等 明太漁船根據地를 舞臺로 活動을 自由롭게하얏고 따라서 만흔 資金을 散布하야 基礎선 販路를 背景으로 咸南明太의 大部分을 占領하야朝鮮明太製造의 覇權을 잡고잇게하얏다。이러한 事情과 아울러元山에 漁業關係團體가 잇슴과 海陸交通의 至便은 元山商人의 活動에 拍車를加해주엇다。이럿듯 明太와元山商人과의 關係가 기프니만큼明太商工業은 元山朝鮮人 商界의 動脈이되여 朝鮮明太漁業의 消長은 直接間接 元山의 繁榮에 關係하게하얏다。

寫眞은 咸南東海의明太漁船漁撈光景

鑛業權設定·移動

◇共同鑛業代表者改定

登錄番號	鑛區所在地	登錄月日	事項
九二九〇	江原淮陽郡下北面 蘭谷面	十二月十八日	代表者를浦江東衆으로改定함
一〇二二五	黃海延白郡金山面 鳳北面	十二月二十一日	代表者를[illegible]으로改定함
一八三二八	江原春川郡新北面	同	代表者를安弼動으로改定함
八一五〇	平北龜城郡館西面	同	代表者를金善弼로改定함

◇共同鑛業權者脫退

登錄番號	鑛區所在地	登錄月日	事項
一二〇二三	慶南河東郡北川面 玉宗面、泗川郡昆明面	十二月十九日	李弼九任意脫退함
同	同	同	金振元任意脫退함
同	同	同	具象任任意脫退함
同	同	同	黃永文任意脫退함
九五七七	平北楚山郡桃源面	十二月十九日	林昌杰任意脫退함
一〇七四三	平北碧潼郡碧潼面	十二月十九日	尹翼周任意脫退함
九七六四	咸南安邊郡衛益面	十二月十九日	桂性雨任意脫退함

◇鑛業權消滅

登錄番號	鑛區所在地	登錄月日	事項
九三七〇	京畿開豊郡西面	十二月十八日	廢業
一一五九	同	同	同
一三一二九	全北高敞郡高敞面 新林面	同	同
一三四一一	全南靈光郡弘農面	同	同
一一七二五	京畿楊平郡砥堤面	十二月十九日	同
一〇六一九	忠南論山郡魯城面	同	同
一三四三三	全南求禮郡山洞面	同	同
一〇四八三	黃海遂安郡公浦面	同	同
一〇五六一	黃海海州郡席洞面 羅德面	同	同
一二六一一	同	同	同
八三四一	平北泰川郡江東面	同	同
一二四一一	平北定州郡高安面	同	同
一三二一〇	平北江界郡立館面	同	同
一一五三〇	江原寧越郡上東面	同	同
九七九二	忠南舒川郡鍾川面	十二月廿一日	同
一一八五四	慶南梁山郡上北面	同	同
九四七二	江原洪川郡乃村面	同	同
九五〇五	咸南端川郡利中面	同	同
一三五一〇	咸南定平郡高山面	十二月廿二日	同

▲鐵物 組閣大命을 拜受한 宇垣大將은 軍部의 猛烈한 反對로 陣痛數日에 드듸어 二十九日에 大命을 拜辭하엿다 그間에잇서 어느商品이 그러치안홈이업스되 더욱히 彪大한 軍事豫算과 緊密한 關係에 잇는 鐵物도 一齊히 下廻되엿다 그는 實需要가 減少되어서 그런것은 아니고 一般의警戒가 用意周到하야 大口取引이 停滯狀態에빠저서 一時일망정 極히閑散을 이루엇든까닭이다 今後政界의 推移는 如何할는고 一時는 低迷市勢가 繼續될것으로보인다 이제二十九日 京城市의鐵製品의 市勢를보면 如左하다

◆亞鉛引平板 幅三尺長六尺 各一枚에

▲平二番三番	
赤門	[illegible]
羽矢	[illegible]
草卒로平	[illegible]
地球	[illegible]
▲厚板	
二十九番	[illegible]
二十七番	[illegible]
二十五番	[illegible]
二十二番	[illegible]
二十番	[illegible]

◆亞鉛引小浪板 各一枚에

▲三十一番	
六尺	[illegible]
七尺	[illegible]
八尺	[illegible]
▲二十九番	
六尺	[illegible]
七尺	[illegible]
八尺	[illegible]

◆亞鉛引大浪板 各一枚에

▲三十一番	
六尺	〇·九六
七尺	一·一七
八尺	一·三三
▲二十九番	
六尺	一·一三
七尺	[illegible]
八尺	[illegible]

◆丸釘 百斤入一樽에

七五	二〇·四〇
一吋	[illegible]
一吋四分一	[illegible]
一吋半	[illegible]
一吋四分三	[illegible]
二吋	[illegible]
二吋半	[illegible]
三吋	[illegible]
三吋半	[illegible]
四吋	[illegible]
四吋半	[illegible]
五吋	[illegible]
六吋	[illegible]
七吋	[illegible]

◆鐵線 十貫에

六番	[illegible]
八番	[illegible]
十番	[illegible]
十一番	[illegible]
十二番	[illegible]
十四番	[illegible]
十六番	[illegible]
十八番	[illegible]
二十番	[illegible]

◆洋釘板 一箇에

三枚入 幅二尺長六尺	[illegible]
枚實	[illegible]

◆丸鋼 十貫에

一分五厘	[illegible]
二分	[illegible]
二分五厘	[illegible]
三分	[illegible]
四分	[illegible]

◆鐵板 三尺六尺十貫에

五厘厚	[illegible]
七厘五厚	[illegible]
一分厚	[illegible]
一分五厘厚	[illegible]
二分厚	[illegible]
三枚物	[illegible]
四枚物	[illegible]
五枚物	[illegible]
六枚物	[illegible]
七枚物	[illegible]
八枚物	[illegible]
九枚物	[illegible]
十一枚物	[illegible]
十二枚物(束)	[illegible]
十六枚物(束)	[illegible]

◆黃銅板 銅板

	黃銅板	銅板
幅尺寸長四尺 一枚에		
五ーニ	[illegible]	[illegible]
一斤半	[illegible]	[illegible]
二斤	[illegible]	[illegible]
三斤	[illegible]	[illegible]
四斤	[illegible]	[illegible]
五斤	[illegible]	[illegible]
六斤	[illegible]	[illegible]
七斤	[illegible]	[illegible]
八斤	[illegible]	[illegible]
十斤	[illegible]	[illegible]

◆八角鋼 十貫에

六分	[illegible]
八分	[illegible]

◆삽

特等기린	[illegible]
一等 象	[illegible]
二等 相	[illegible]
콩크리ー트用	[illegible]

(福田又商店京城支店調)

◆釘 百斤에

五分	[illegible]
六分	[illegible]
七分	[illegible]
八分	[illegible]
一寸	[illegible]
一寸二分	[illegible]
一寸四分	[illegible]
一寸六分	[illegible]
一寸八分	[illegible]
二寸	[illegible]

◆鐵條網 一卷에

大番(約二百間)	[illegible]
小番(約百半間)	[illegible]

◆白銅板 百斤에

六寸幅(東京製)	[illegible]
二十番	[illegible]
廿二番	[illegible]
廿四番	[illegible]
廿六番	[illegible]
廿八番	[illegible]
三十番	[illegible]

◆雜鐵地金 百斤에

丁鍋	[illegible]
折鍋	[illegible]
너젓丸百俵에	[illegible]
純銅	[illegible]
砲金濱	[illegible]
角砲金 丸天票	[illegible]
古銅線	[illegible]
鐵地鋼	[illegible]
生子鉛	[illegible]
棹鉛	[illegible]
丁亞鉛	[illegible]

雙虹舞 【99】

方仁根 作 金奎澤 畵

가난 (五)

가난에 부대기고 갈리고해도 그것을 익이고 복적이려나는사람은 위인이다。가난에굴하지안코 그것에 인격이·오히려연마되면 그는 땅채나는 보배이다 모든 오만덩이 인간도 이가난으로 닥기어나면 그사람은 비로소 완성된 인격자이다。가난을 모르고 훌륭한사람이될 그는 생명업는 인형과 가튼다。

호화로운 생활속에서만 잇는사람은 갑싼 수채화일지언정 고귀한 예술품은못된다。

그러므로 가난이란 버려지는날마다 수억만사람의 생명을 갈가먹기도 하려니와 그얼마는사람의생명에 보재가되는것은 마치 뱀이나 독약이사람을 죽이기도하고 살리기도하는것과가트다。

은명은 잡을못이루웟다。태식이주고간돈은 어머니가 소중하게간수하엿다。은명은 그돈으로무엇무엇할것을 생각하기에 한참은 정신이업섯다。그러나 다시그에게는 불쾌한 생각이 치밀엇다。

『아니다! 그돈을 쓰다는것은모욕이다 비루한일이다!』

그의머리에는 이런 용맹스러운 생각이 뻘처럼 홰도다낫다

『그러타! 그돈을 내일갓다주리라!』

이러케 생각하고나니 은명은 무슨 큰승리나 한듯이 시원하엿다。그러나 그뒤에는 적막하엿다。그돈으로 한번풍성하게쓰려고하든것이 쓸데못쓰고 갓다준다면 그뒤에는 여전히 괴롭고 어려운 살림이 조수처럼다칠것을 생각하니 기가막히엇다。

그돈을보지안코 냄새를 아니마튼것만 침신 못하엿다。그것은 밥이나 고기에 주린사람이 그냄새를마터도 미치는것과 마찬가지로 돈에주린사람에게 돈백원의지전뭉치가 하늘처럼 귀하지아니할수업섯다。그돈이 만일 정당한돈이라면 얼마나 이밤이 즐겁고 그돈이 이방에잇는것을 생각하면 얼마나 흐뭇하랴。

은명은 고민하엿다。밤새것돈을 태식에게 갓다가주엇다 아니주고젓다 몃백번 되푸리하엿는지 모른다。태식을 미워하엿다가 태식을 고맙게 생각하엿다가 또다시 자기를 비루하다 고욕하엿다가 괜찬타고 변호하엿다가 몃번이나 되푸리 하엿는지 모른다。그리고 한숨을휘ー내쉬엿다。그대로 이러다저러다 딱작정을못하고 해결을 못저은채 새벽에야 겨우 꿈속가록 잠을 들엇다。……그러나꿈에도 여전히 그것과 싸웟다。이번에는 남편광훈이까지 등장하엿다。왜 그돈을썻느냐고 야단하는 망령도 잇고 그대신에 천원을 주루룩쏘다노흐며 맘대로 쓰라고 하는망령도 잇섯다

『너가튼 여자와는 아니산다!』하고 광훈이 달아나는것을 은명은 울고 소리치며 따라가도 도무지 거름이 걸리지아니하여 못쪼차가는 꿈도 잇섯다。그러다가 깨고 나니 은명은

『암만해도 그돈을 갓다 주는 것이 올치……그러나 그돈을썻다고 천봉아버지가 그다지 노여워할 까닭도업겟지—또 그이에게 알릴 필요는잇나 공연히 내가 생각하고맘에잡히니까 그런 꿈을꾼게지』하고 다시 변명하엿다。

그러나 무엇보다 그날 현실이 그돈백원중에서 얼마를 헐어서 쓰지아니치 못하엿다。위선 당장먹을쌀과 나무와 반찬과 날마다 재촉을밧는빗과 이런데 쓰게되엿다。그의어머니는 웬어떠지 모르지만은 은명은 몽클하고 가시를 삼킨것처럼 뜩금뚝금하엿다。

은명은 다시생각하기를

『내가 왜이러케 약할가 갓다 주든지 이왕썻스면 생각을 말든지하지 밤낫 이럴거야 뭐잇서——오늘 돈쓴것을 다음에생기면 보태서 백원을 갓다주어도 그만이고——또그러케못되면 이담에 돈이만히생기면 이자까지 갓다주면 그뿐이아닌가』하고 맘을 뚝잘러먹엇다。——이것이 빈궁이란 사람을 죄짓게하기쉬운것이다。빈궁은 죄짓도록 올개미를 씨운다。은명은 가엽게도 그올개미에씨워 결박을당하고 포로가 된것이다。

그러나 그날은 즐거웟다。빈궁의감옥에서도 잘먹으니 기쁘다 오래간만에 보리아니섞은 쌀밥만먹게되고 고기를사서 천봉에게 국국물을해서 먹이니 아이가 너무맛잇서 조와하는꼴이 눈물나면서도 기뻣다。이것하나만으로도 태식이 고마우며 자지각하엿다。희생한것이 잘되엿다고 생애이엇다。

『천봉아—맛잇지!』하는 말을할때 자기말이라도 드러웟다。그러나 천봉은 우스며 고개를끗떡하는것을 볼때는 눈물이왈칵쏘다젓다。